

초기 유학과 '한국적 사유' 조명

'1958, 에콜 드 파리' ... 손동진, 권옥연 등 전시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난 1920년대 후반, 파리는 세계의 물질적 풍요가 모이는 중심점이자 문화적 수도였다. 사갈 피카소 모딜리아니 키슬링 등 외국인 화가들은 파리 몽파르나스에 모여서 예술활동을 했다. 이들의 다양한 문화가 융합하고 충돌하면서 파리에서는 수많은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미술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앙드레 와르노는 1925년 문학잡지 <코메디아>에서 처음 에콜 드 파리를 용어를 사용해 이런 현상을 묘사했다. 이후 에콜 드 파리는 20세기 초 유럽에서 일어났던 아방가르드 미술운동의 중심에서 있던 예술가들을 총칭하는 말이 됐다. 이를 통해 파리는 제3세계의 젊은 작가들에게 동경과 이상을 상징하는 곳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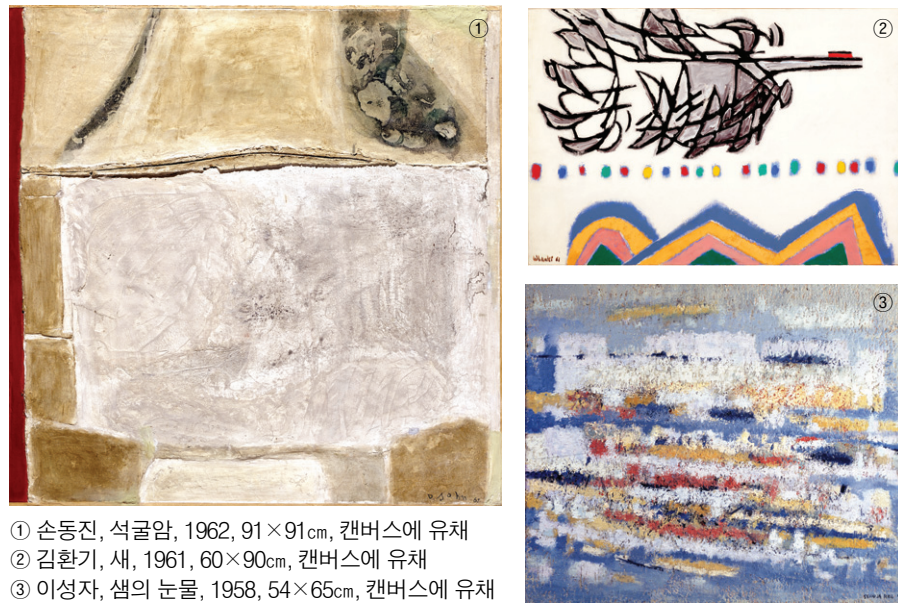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자 한국의 젊은 화가들도 하나둘씩 파리로 건너갔다.

식민지 시기인 1920년대 후반 배운성, 나혜석 등은 파리를 근거지로 활동한 제1세대이다. 1958년, 파리에 도착한 젊은 한국인 작가들은 예술적 자유와 문화적 풍요가 넘치는 전 세계에서 본격적이고 진정한 제1세대 한국인 '에콜 드 파리'를 형성했다.

이들은 한국전쟁을 통해 가장 처절한 인간적 비극을 목격하고 가장 비참한 문화적 궁핍을 경험한 후였기에 그들이 가진 갈증과 열망은 비례해 컸을 것이다.

이들은 특정 유파나 경향에 한정되지 않았다. 각자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창작에 몰두했다. 세계 미술계를 품미하던 주류적 경향에 휩쓸리지도 않고 예술의 아방가르드적 태도와 이념을 수용하면서도 한국적 주제나 미의식 전통성 서정성이 녹아든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포기하지 않았다.

신세계갤러리는 3월 17일까지 현대미술의 대가로 자리한, 제1세대 재불(在佛) 한



① 손동진, 석굴암, 1962, 91×91cm, 캔버스에 유채
② 김환기, 새, 1961, 60×90cm, 캔버스에 유채
③ 이성자, 샘의 눈물, 1958, 54×65cm, 캔버스에 유채

국작가들의 '1958-Ecole de Paris' 전시를 개최한다.

전시에서는 1958년 파리에 머물며 한국적 추상미술을 열었던 권옥연(1923~2011), 김환기(1913~1974), 남관(1911~1990), 손동진(1922~), 이세득(1921~2001), 이성자(1918~2009) 등의 작품 32점이 전시된다.

1956년 파리로 건너간 김환기는 자신이 지녔던 추상화풍을 확장시켰다. 그는 "파리에서 본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그려오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고백했다. 한국적 소재를 추상화로 표현한 1950년대 작품 '할아리(1956)' 나 '새(1960)' 등 추상에 얽은 한국성을 드러낸 작품에는 그가 파리거장들로부터 체득한 리듬과 운율이 보인다.

손동진은 일본유학을 마친 1954년 바로 파리로 떠났다. 그는 파리에서 서구의 근대미술을 직접 보고 싶었지만 오히려 우리의 전통에 대한 관심과 고전을 재발견했다. 그는 예전 경주에서 살았던 경험을 되살려 낙랑 신라 고구려 등의 전통소재를 서구적 표현양식을 거쳐 '석굴암' '탈춤'

작품을 선보였다. 1955년 파리에 도착한 남관은 '파리야경' 등 작품을 통해 타향에서 앓은 외로움과 고뇌를 정형화되고 기하학적인 추상화로 표현했다.

이성자는 한국작가 중 프랑스 화단의 중심에서 역량을 발휘했던 제1세대 재불한 인작가이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1991년 '예술·문학 최고 훈장'을 수여했다. 이성자는 도자기, 목판화와 같은 동양적 향취와 이미지를 담아내는 한국적 소재에 애착을 갖고 서양적 해석을 통해 현대미학으로 승화시키려 했다.

1955년부터 파리생활을 시작한 권옥연도 추상을 흡수했다. 평면적이던 풍경과 인물들은 추상적인 실험의 진행에 따라 형태를 바꾸어갔다.

신세계갤러리는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미술 정착기를 품미한 대가들의 전환기를 비교하며 볼 수 있는 기회"라며 "전쟁의 비극을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간 한국인 작가들이 유년시절 무엇을 꿈꾸고 이뤘는지 상상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310-1921 이나은 기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봄을 기다릴 때



무슨 생각을 그리 했을까. 낙수와 낙수 사이에서 겨울바람은 어쩔 수 없었다. 한 생각이 될 수밖에. 사라져야 하는 찰나와 찰나 사이에서 겨울바람은 어쩔 수 없었다. 숲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겨울은 자연이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인 것 같다. 처마에 매달린 고드름을 봐도 그렇고, 숲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 생각에 매달린 겨울바람을 봐도 그런 것 같다. 겨우 머리와 손톱을 길러내는 동안 숲은 바람을 기다리며

아우었고, 바람은 숲을 그리며 건디고 있었다. 고드름이 녹기 시작했다. 겨울바람은 숲으로 돌아 가고 낙수는 미련 없이 찰나를 따라갔다. 무슨 생각을 그리 했을까. 낙수와 낙수 사이에서 겨울 햇살은 어쩔 수 없었다. 한 생각이 될 수밖에. 사라지는 찰나와 찰나 사이에서 겨울 햇살은 어쩔 수 없었다. 바람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무슨 생각을 그리 했을까. 꽃이 피는 날? 따뜻해진 세소리? 곧 봄이 올 것 같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경상 조선 송계나식 선사의 '그윽한 흥(幽興)'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吾今所構屋 (오금소구옥)
山水最清奇 (산수최청기)
坐月起幽興 (좌월기유흥)
臥雲斷是非 (와운단시비)
鶴巖千丈直 (학암천장직)
龍瀑百層垂 (룡폭백층수)
眞箇無窮景 (진개무궁경)
問山付與誰 (문산부여수)

내가 지금 지어 놓은 집
경치가 최고로 맑고 빼어나.
달에 앉으니 그윽한 흥 일고
구름에 누우니 시비 끊기네.
학 바위 천 길 뻗었고
용 폭포 백 층 드리웠네.
참으로 무궁한 경치
산에게 묻노니 누구에게 줄까?

조선 송계나식(松桂懶晷; 1685~1766) 스님은 왕가의 후예로 승방에서 독서하다가 스님들의 청정한 수행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 출가했다.

스님은 '안으로는 스님이요 밖으로는 시인[內釋外驪]'이라는 평가만큼이나 시 작(詩作)에 뛰어나 자연 소재의 순수한 서경과 서정의 시를 많이 남겼다. 이 시는 서

경에 서정을 잘 가미했다.

스님은 자신의 토굴을 경치 좋은 산수간에 지어 놓았다. 달과 구름 속에서 스님은 그윽한 흥을 일으키고 시비분별을 끊는다. 달과 구름에 동화되어 가는 집 주인의 마음을 우선 읊었다. 이제 집의 배경이 되는 자연을 보여준다. 높이 솟아 있는 바위산에 학이 깃들여 살고 층층이 부서져 내

려오는 폭포수에는 용이 잠겨 있을 듯하다. 시각과 청각의 효과를 동시에 거두었다. 더불어 학의 고고함과 용의 생동하는 활발발함으로 스님의 내면 상태를 노출시켰다.

<화엄경>의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간을 그려낸다"는 말처럼 자연을 어떻게 그리는 가는 바로 내 마음에 달려 있음을 잘 보여 준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말구에서 '산에게 묻는다' 하였다. 주객이 바뀐 것이다. 스님은 애초에 산이 주인이었음을, 빼어난 경치는 내 마음이 그려낸 그림이 아니었음을 할(囑)하였다. 스님이 읊고자 하였던 그윽한 흥(幽興)이란 바로 '전도(顛倒)된 생각에서 벗어난 主客未分의 도리' 그것이였다.

원법 스님(문문사 중강·조계종 교수이사리)



독도·4대강 문제 회향 염원 담아

강행원 화백 14번째 개인전

1980년대 '난지도' 연작을 비롯해 주로 그늘진 삶을 주제로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현장화 화풍에 담아온 윤산 강행원(64) 화백이 14번째 개인전을 연다.

강행원 화백은 3월 6~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자연과 사람들'을 주제로 전시회를 갖는다.

강 화백은 독도를 넘보는 일본의 망령을

환기하는 내용을 담은 '우리에게 신이 내린 선물 독도'를 비롯해 '4대강의 물길순례' '춤과 서민의 삶' 그리고 통일을 염원해 그린 '통일대불' 등 다양한 작품 35점을 선보인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당면한 독도문제와 4대강을 바라보는 시각을 화두로 던지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02) 2105-8189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통일대불, 가공캔버스, 수묵혼합채색, 53×45.5cm

틱낫한 스님의 심리 처방전

화해

내안의 아이 치유하기

세계인의 멘토 틱낫한 스님의 마음 치유 이야기 결정판! 인생을 건너가는 힘을 주는 가장 구체적인 화해의 기술

틱낫한 지음 | 진우기 옮김
240면 | 13,000원

“당신 안의 아이와 화해하라.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한 권으로 보는

세계불교사

변화와혁신의21세기

미래 불교가 나아갈 길은? 도전과 응전의 2,600년 역사속에 있다!

세계불교사

송기대학 교재
508면 | 23,000원

인도 | 중국 | 일본 | 베트남 | 스리랑카 | 미얀마 | 태국
캄보디아 | 티베트 | 몽골 | 타이완 | 미국

Tel. 02) 420-3200 Fax. 02) 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법정 스님과 행복한 동행을 한 사람들

법정, 나를 물들이다

꽃은 다시 가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때 그곳에다 모두 내맡긴다.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법정 스님 지음 | 352면
15,000원

“그래, 너는 네 세상 어디쯤 와 있느냐?”